

문법 기출문제(1)

2014학년도 수능 A형

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1)

- ㉠ 빗 →[빔], 앞 →[압], 안팎 →[안팍]
- ㉡ 약밥 →[약뻬], 잡다 →[잡따]
- ㉢ 놓지 →[노치], 말형 →[마텟]

- ① ㉠과 ㉡은 중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따뜨따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예

- ㉠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P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P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예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 군.
- ② ‘에㉠’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에㉠㉢’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 군.

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

<보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색깔이 회기가 문과 같다.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

<보기>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5)

<보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계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예 진지)....㉡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2014학년도 수능 기출 B

6.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6)

<보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① 길이, 마중 무덤, 지붕 | |
| ② 무덤, 지붕 뒤뜰, 쌀알 | |
| ③ 뒤뜰, 쌀알 무덤, 지붕 | |
| ④ 길이, 무덤 뒤뜰, 쌀알 | |
| ⑤ 마중, 지붕 길이, 쌀알 | |

7.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7)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곁-옷[거둔],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 : 뇨, 흘-이불[훈니불]

- | | |
|---------------|---|
| ㉠ | ㉡ |
| ① [꼰니랑] [꼬도목] | |
| ② [꼰니랑] [꼬초목] | |
| ③ [꼰니랑] [꼰노목] | |
| ④ [꼬디랑] [꼬초목] | |
| ⑤ [꼬디랑] [꼬도목] | |

8.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8)

<보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9.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9)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10.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 보 기 >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뜬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 어제 뭐 했니?
B :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 감기 걸렸다면?
B :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잠겼어.
- ④ ㉡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빴어.
- ⑤ ㉢
A : 너 오늘도 바빠?
B :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

2015학년도 수능 A형

11.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11)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2015학년도 수능 공통

12.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 보 기 >

더-하다
 ㉠ ㉠
 【…보다】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Ⅲ 동사

① ㉡ 【…을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 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 /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②【…을】【…에/에게 …을】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걱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

덜-하다 형용사

【…보다】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 II ㉡’이다.

2015학년도 수능 공통

13.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3)

< 보 기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15학년도 수능 B형

14.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⁴⁾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 이 조항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대[익따], 읊는[음:는], 닦지[닥찌], 읊기[읍끼], 밝는[밤:는]

- ① ‘읽대[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는]’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닦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밝는[밤:는]’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15.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¹⁵⁾

- ① 옛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였다.
- ⑤ 저기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2014학년도 6월 A형]

16.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¹⁶⁾

※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부엌, 간, 옷, 빛, 달, 섬, 앞, 창

- (1)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 ② ㉢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③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 ‘ㅂ’과 ‘ㅁ’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ㄹ, ㅁ, ㅂ, ㅇ, ㅅ, ㅇ’만 발음된다.

17.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¹⁷⁾

<보기 1>
문 장

- 아침에 하는 ㉠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 달리기 시작했다.

설 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그는 멋쩍게 ㉡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 춤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 길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8.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18)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친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1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9)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0.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20)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 여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벌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을】 벌에 찍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벌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2014학년도 6월 B형]

21.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1)

<보 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계]와 같아진다.
- ‘예, 레’ 이외의 ‘ㅛ’는 [계]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ㅛ’는 항상 []로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② ‘금괴’를 [금꺠]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지혜’를 [지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비취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2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22)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 | (가) | (나)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2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3)

자료	• (선생님께) “아니오,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아니, 몰라.”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 뭘 할까? • 어서오, 빨리오. ☞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2014학년도 9월 A형]

24.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24)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깡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25)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26.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26)

갈-리다1 ㉠

① '갈다1 ①'의 피동사.
 ㉡ 밧돌에 콩이 갈리다.
 ② '갈다1 ②'의 피동사.
 ㉢ 벼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2 ㉡ '갈다2'의 피동사.
 ㉣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1'을 보니, '갈다1'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1'과 '갈-리다2'를 보니, '갈다1'과 '갈다2'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1'을 보니, '갈-리다1'은 '갈다1'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1 ①'을 고려할 때, '갈다1 ①'의 용례로 '밧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2'를 고려할 때, '갈다2'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27.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27)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답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선생님 :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학생 : 3시부터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어머니 :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아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학생 A :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학생 B :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언니 : ㉣ 어쩔 이럴 수 있니?
 동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① 가 나

② 가 바

③ 나 바

④ 바 나

⑤ 바 바

28.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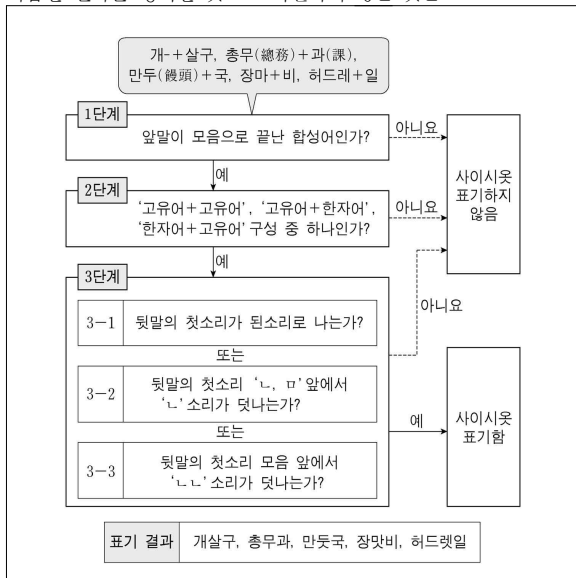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이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안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29.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9)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마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레일'이라고 쓴다.

30.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30)

질문 : '앞앞'은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인데 [ㅍ]과 [ㅂ]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ㅡ'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은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31.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1)

부정확한 문장	수정한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 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이다.	'유학자'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 내기도 한다.
- ③ ㉢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2013년 3월 모의A]

32. <보기>의 ㉠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32)

< 보 기 >

오늘 국어 시간에 두 가지 음운 규칙을 배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이 [입]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말 받침으로 소리 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규칙은 비음화인데 '밤만'이 [밤만]이 되는 것처럼 'ㄱ, ㄷ, ㅂ'이 'ㄴ, ㅁ' 앞에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

이제 ㉠ '꽃눈'이 [꼰눈]으로 소리 나는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

    graph TD
      A[꽃눈] --> B[꼰눈]
      B --> C[꼰눈]
      D[비음화] --> B
      style D fill:#ccc
    
```

- ① 끝까지[끝까지] ② 부엌도[부엌또] ③ 눈약[눈약]
- ④ 놓는[논는] ⑤ 덮밥[덱밥]

33.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33)

< 보 기 >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ㄱ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ㄱ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르다
② 기능	깊다, 모르다 ㄱ 호수, 강, 깊이 ㄱ 누구 ㄱ 가, 의 ㄱ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르다 ㄱ 호수, 강, 깊이, 누구 ㄱ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ㄱ 모르다 ㄱ 호수, 강 ㄱ 누구 ㄱ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ㄱ 깊이 ㄱ 모르다 ㄱ 호수 ㄱ 강 ㄱ 누구 ㄱ 가 ㄱ 의 ㄱ 는 ㄱ 도

34.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4)

< 보 기 >

점원 : 손님, 어떤 옷을 ㉠ 찾으십니까?
 손님 : 셔츠를 좀 보려고요. ㉡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 저희 아버지는 ㉣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 그러시면 ㉤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러 주세요.

- ① ㉠ : '-하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35.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5)


< 보 기 >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와 같은 단어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볼까요?

- ① **보다** { 다회를 **보**며 인상을 썼다.
이 도시를 유통의 중심지로 **보**나.
- ② **듣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종종 농담을 진담으로 **들**는다.
- ③ **느끼다** {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 ④ **맛보다** { 찌개의 간이 어떤지 **맛**보았다.
인간은 때때로 상실감을 **맛**본다.
- ⑤ **말다** { 라일락 향기를 **맡**으니 봄이 온 것을 알겠다.
형사는 그가 범인이라는 냄새를 **맡**았다.

36.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36)

< 보 기 >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의 온도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사랑의 온도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모금의 목표액을 온도계의 온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계의 온도가 아직 50°C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①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 ②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진 담화가 호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③ 상세한 내용 제시 후 일반적 내용을 제시하는 담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④ 비문법적인 표현, 단어의 반복이 나타나는 구어 담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⑤ 1:1 소통을 통해 실시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매체 담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2013년 3월 모의 B]

37. 다음은 ‘안다’의 표준 발음에 관해 어느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7)

의문 “아기를 안다[안 : 따].”와 “그 사람을 잘 안다[안 : 다].”에서 ‘안다’의 표준 발음이 다른 이유는 뭘까?

↓

탐구 (1) 음운 환경이 유사한 단어를 된소리 발음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한다.

<p>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신발음) 신다[신 : 따]</p>	<p>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 (하늘음) 난다[난다]</p>
↓	↓
<p>어간 어미 신- -다 -고 -어서</p>	<p>어간 어미 날- -다 -고 -아서</p>

(2) 표준발음법 규정을 확인하여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결론 “그 사람을 잘 안다.”의 ‘안다’가 표준발음법의 된소리되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

- ① ‘안다’에 대한 개인의 발음 습관 차이 때문이다.
- ② ‘안’이 길게 발음되어 ‘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③ ‘안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표현 의도 때문이다.
- ④ ‘안다’에서 ‘다’의 ‘ㄷ’이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안다’에서 ‘안’의 ‘ㄴ’이 어간 받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8. <보기> (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8)

< 보 기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언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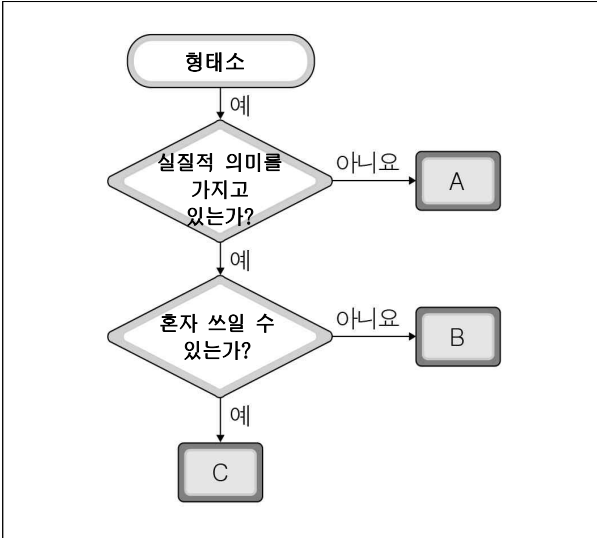
39.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의 문제이다.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나는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①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②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 ③ ㉢: ‘으로’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 ⑤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2013년 4월 모의A]

40.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40)



— < 보 기 > —

복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복두칠성을 흔히 국자㉢ 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쏘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 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이다.

- | | A | B | C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41.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1)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ㄴ’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날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입]’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된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줍니다.

< 보 기 >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콘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 ㅁ. 그녀는 ㉤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는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략]’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42.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42)

< 보 기 >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건-	+ -고	→ 건고
		+ -아/어	→ 걸어
		+ -아라/어라	→ 걸어라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이르러
		+ -아서/어서	→ 이르러서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이 빨리 불러 오너라.
- ② 하늘이 파래서 기본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라.
-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4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3)

<보기 1>

실제 발화의 의미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장면 등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발화에서의 지시 표현은 시간적, 공간적 장면이 있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높임 표현도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물들 사이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확신이나 추정 등 말하는 이의 심리적 태도나 의도, 생략된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담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 2>

영희: 여기 있던 빵 누가 치웠어? (철수를 쳐다보며) ㉠ 네가 먹었지?
 철수: 아니, 내가 먹은 건 아니고 아까 희수가 배고프다고 해서 줬어.
 영희: 아이고, ㉡ 참 잘하셨네요.
 철수: 그 빵이 네 빵이었어? 미안해. ㉢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래?
 영희: 그거? 그래, ㉣ 먹을래. (과자를 먹다가 건네며) 근데 난 배 안 고파?
 철수: ㉤ 난 점심 먹었어.

- ① ㉠: 영희의 행위를 고려할 때 ‘먹었지?’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심하면서 이를 확인하려는 심리를 전달한다.
- ② ㉡: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네요.’는 표현된 진술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 이어지는 영희의 반응을 고려할 때 ‘이’라는 지시 표현은 ‘과자’가 철수보다는 영희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 ④ ㉣: 철수의 직전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과자를 건네는 영희의 행위와 마지막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제안을 거절하려는 철수의 심리가 담겨 있다.

44.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4)

< 보 기 >

○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ㄱ.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한다.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다. / 동생은 야채를 싫어하다.)

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철수가 오다. / 그들이 출발하다.)

○ **안은 문장:** 홑문장을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ㄷ.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언니는 그것을 알다. / 그 아이가 학생이다.)

ㄹ.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책을 읽다. /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오다.)

* ■ 표시: 안긴 문장임.

- ①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 ②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데군.
- ③ ㄱ과 ㄹ로 볼 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 ④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 ⑤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2013년 4월 모의 B]

45.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메모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완성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45)

〈보기1〉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가끔’처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산뜻하다, 훨씬, 움찔, 엉뚱하다’처럼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갑자기’와 같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뚝뚝(-하다)’처럼 같은 음절이 겹쳐 나가거나 ‘쓱쓱’처럼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보기2〉

형의 ㉠(해숙한/해숙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되었나 봐. ㉡(짹짹한/짹짹한)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각뚜기/각뚜기)를 심심하게 담그시더니 형에게 보내라고 하시네. 혼자서 밥을 챙겨먹기는 힘들겠지만 ㉣(듬뿍/듬뿍)담긴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끼니 거르지 마. 이제 형은 집 걱정 ㉤(몽땅/몽땅) 잊고, 건강 먼저 챙겨.

동생이

- ① ㉠은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해숙한’으로 써야 한다.
- ② ㉡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고 있으므로 ‘짹짹한’으로 써야 한다.
- ③ ㉢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므로 ‘각뚜기’로 써야 한다.
- ④ ㉣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듬뿍’이라고 써야 한다.
- ⑤ ㉤은 한 단어 안의 첫음절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몽땅’으로 써야 한다.

46. 다음은 표준 발음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이다.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46)

【 표준 발음법 】

제2장 제5항 ‘ㅈ ㅉ ㅋ ㆁ 과 ㅊ ㆁ 거 ㆁ 게 ㆁ ㆁ’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2. ‘예, 레’ 이외의 ‘ㄱ’은 [k]로도 발음한다.

다만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n]로 발음한다.

다만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i]로, 조사 ‘의’는 [k]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제1장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ㅣ	ㅘ
i	e

2. 이중모음

ㅚ	ㅟ
ye	ui

[붙임1]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① ‘승례문’에서 ‘례’의 ‘ㄱ’은 [k]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도에촌’에서 ‘예’의 ‘ㄱ’은 [k]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e’로 표기할 수 있다.
- ③ ‘퇴계원’에서 ‘계’는 ‘예, 레’ 이외의 ‘ㄱ’이어서, [k]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충의사’에서 ‘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이어서, [i]로 발음되나 ‘ui’로 표기해야 한다.
- ⑤ ‘광희문’에서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어서, [i]로 발음되므로 ‘i’로 표기해야 한다.

47.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7)

탐구 학습지

과제: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틀리기 쉬운 문장

-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뻐다.
-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르지 않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④
㉤	이중 피동을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⑤

[2013년 7월 모의 A]

48. <보기 1>의 ㉠, ㉡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48)

<보기 1>

㉠ 나는 듣직한 말형이 좋다.
[나는 듣지간 마형이 조타]

㉡ 작문 시간에 해돋이를 주제로 글을 쓴다.
[장문 시가네 해도지를 주제로 그를 쓴다]

<보기 2>

ㄱ.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든다.

ㄴ.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탈락한다.

ㄷ.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ㄹ. 두 음운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덧붙는다.

- | | | |
|---|---|---|
| | a | b |
| ① | ㄱ | ㄷ |
| ② | ㄱ | ㄹ |
| ③ | ㄴ | ㄷ |
| ④ | ㄴ | ㄹ |
| ⑤ | ㄷ | ㄹ |

49. 다음 자료를 통해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9)

내 단짝 친구는 **바로** 은수인데, 은수는 춤을 **매우** 잘 춘다. **쉬는 시간에** 은수가 ㉠ 교실 앞에 나와서 춤을 췄다. 은수는 요즘 인기가 많은 **가수와** ㉡ 비슷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해 주자 은수는 **무척** 즐거워했다.

탐구 결과	
‘바로’와 ‘매우’가 꾸미는 문장성분을 살핀다.	부사어는 다양한 문장성분을 꾸민다. ①
‘쉬는 시간에’를 ㉠에 옮겨 본다.	부사어의 위치를 바꾸면 부사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②
‘매우’와 ‘가수와’를 생략해 본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③
㉡에 ‘정말’을 넣어 본다.	부사어를 넣어 서술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④
‘무척’ 뒤에 ‘-이나’를 붙여 본다	부사어는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⑤

50.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에 추가할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50)

—<보 기>—

○ 그는 관객들에게 최면을 걸고 모두 잠들게 했다.
 ○ 정보 산업에 미래를 걸고 있었다.
 ○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

—<국어사전>—

걸다[갈:다] [걸어, 거니, 거오] ㉠
 ○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다.
 ○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을 품다.
 ○ _____ ㉠

- ① 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 ②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
- ③ 다른 사람이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 ④ 명예나 목숨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다.
- ⑤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51. 다음의 ㉠,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1)

학 생: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걸’은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걸’은 앞말에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걸’은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여기서 ‘거’는 의존명사 ‘것’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지요. 그런데 ‘걸’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 ‘걸’은 ‘-ㄴ걸, -는걸’ 등과 같은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	㉡

- ①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 ②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 ③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 ④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뭐.
- ⑤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5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52)

—<보 기>—

선어말 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2013년 7월 모의 B]

53.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53)

—<보기 1>—

두 음운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 한다.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기 2>—

내일은 소풍 가는 날, 비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다. 잔디밭을 ㉡밟고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놀며 ㉣멋진 경치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잠도 오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54)

— < 보 기 > —

‘막일’은 [망닐]로 발음된다. 이는 표준 발음법 제18항과 제29항이 적용된 것이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ㅍ, ㅎ), ㄴ(ㄴ, ㄹ, ㄷ, ㅌ)’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예로는 ㉠ 을/를 들 수 있다.

막일	→	[막닐]	→	[망닐]
⋮		⋮		⋮
제29항		제18항		

- ① 식용유 ② 색연필 ③ 숨이불 ④ 맨입 ⑤ 국물

55. 다음은 바른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55)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이중 피동이 사용됨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려졌다. →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렸다. ㉡
중의적 표현이 사용됨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 ㉢
조사를 잘못 사용함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2013년 10월 모의 A형]

56.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6)

— < 보 기 > —

○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최고점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의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입의 개폐)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ㅌ
	중모음(반개모음)	ㅑ	ㅕ	ㅗ	ㅛ
	저모음(개모음)	ㅓ	ㅗ	ㅜ	ㅟ

철수: 영희야, 넌 ‘게’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게’와 달리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야 해.
-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③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⑤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57.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7)

— < 보 기 > —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	○	○ ㉠
감나무를	○	○	× ㉡
인내심을	○	○	× ㉢
수업을	○	×	× ㉣
첨단산업을	×	○	×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③ ㉢와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58.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58)

< 보 기 >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담이

59.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9)

< 보 기 >

지난 토요일에 ㉠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건다 생각해 보니, ㉤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다들 바빠서인지 ㉥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 가 생략되기도 하는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 ⑤ ㉥을 보니, 체언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 가 될 수 있군.

6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60)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방 정리를 ㉠ 하고 있구나.
 아들: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 내놓았어요.
 어머니: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 줘 버렸어요.
 어머니: 그래 잘 했다. 아침,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다.
 아들: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10월 모의 B]

61. <보기>를 고려하여 ‘동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61)

< 보 기 >

[표준 발음법 - 음의 동화]

- 받침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ㅈ, ㅊ, ㅌ, ㅎ), ㅂ(ㅂ, ㅃ,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단, 일부 한 자어의 경우 예외가 있다.
-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① ‘미담이’는 ‘ㄷ’이 모음 ‘ㅣ’에 동화되므로 [미다지]가 표준 발음이다.
- ② ‘닫는’은 ‘ㄷ’이 ‘ㄴ’에 동화되므로 [단는]이 표준 발음이다.
- ③ ‘침략’은 ‘ㄹ’이 ‘ㄹ’에 동화되므로 [침략]이 표준 발음이다.
- ④ ‘칼날’은 ‘ㄴ’이 ‘ㄹ’에 동화되므로 [칼랄]이 표준 발음이다.
- ⑤ ‘신문’은 ‘ㄴ’이 ‘ㄹ’에 동화되므로 [심문]이 표준 발음이다.

62. <보기>의 (가)-(다)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⁶²⁾

< 보 기 >

(가)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나)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의미 중복	조사의 잘못된 사용
①	(다)	(나)	(가)
②	(다)	(가)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가)	(나)	(다)

6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⁶³⁾

자료

◦ 차에 실은(○) 것이 뭐니?
◦ 시들은(×) / 시든(○) 꽃 한 송이가 있다.
* ○: 어문 규정에 맞음. ×: 어문 규정에 어긋남.

의문

◦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실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탐구

㉠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
◦ 실은 → 실-(어간) + -은(어미)
◦ 시든 → 시들-(어간) + -ㄷ(어미)

㉡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 소리다.	듣다	들은	듣-+-은
정성을 쏟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내밀은(×) / 내민(○)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ㄷ
부풀은(×) / 부푼(○)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푼	부풀-+-ㄷ

결과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 .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ㄷ'이 결합하면 ㉡ .

- | | |
|-----------------|------------|
| ㉠ | ㉡ |
| ① 'ㄷ'이 'ㄹ'로 교체됨 | '-으-'가 삽입됨 |
| ② 'ㄷ'이 'ㄹ'로 교체됨 | 'ㄹ'이 탈락함 |
| ③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 ④ 'ㄷ'이 탈락함 | 'ㄹ'이 탈락함 |
| ⑤ 어간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2014년 3월 A형]

64. <보기>의 음운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⁶⁴⁾

< 보 기 >

'ㅎ'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한다. '냠으세요'를 [나으세요]로 발음하거나 '쌩이다'를 [싸이다]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 ① '하얏다'를 [하야타]라고 발음한다.
- ② '줍히다'를 [조피다]라고 발음한다.
- ③ '농는다'를 [논는다]라고 발음한다.
- ④ '그렇죠'를 [그러쵸]라고 발음한다.
- ⑤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한다.

65. <보기>의 ㉠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65)

< 보 기 >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환하다’의 의미로 쓰여 형용사가 되고 ‘날이 밝는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다’의 의미로 쓰여 동사가 된다.

- ①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긴 겨울방학이 끝났다.
- ② 나이보다 얼굴이 젊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 ③ 봄바람이 따뜻하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 ④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크다.
- ⑤ 외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그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했다.

66.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66)

< 보 기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67. 다음은 ‘다의어’에 관한 탐구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67)

< 보 기 >

- ㉠. 그 분은 아침에 서울로 가셨다.
- ㉡. 너에게 신호가 가면 직접 숲을 해.
- ㉢.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중간은 간다.
- ㉣. 그렇게 이른 시간에 친구 집을 간 본 적은 없다.
- ㉤.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 ㉥. 물이 어른 무릎쯤 가는 냇물이라 아이들이 놀기에도 적당하다.

▶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1) ㉠~㉥을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묶어 보자.

(㉠, _____) (㉡, _____) (㉢, _____)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 _____ ㉡

- ①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
- ②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르다.
- ③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난다.
- ④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 ⑤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68. 아래의 글에서 <보기>의 ㉠과 ㉡가 모두 나타난 것은?68)

— < 보 기 > —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상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지시 표현, 접속 부사 등과 같은 ㉠연결어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유사한 어휘 또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도 표현된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

청소년 목공 동아리 '목동'의 이번 활동은 연필꽂이 만들기입니다. ① 먼저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다음으로 치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치수에 따라 나무를 자르는 재단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단된 나무를 잘 배치해서 접착제로 붙입니다. ② 우리 목동 친구들은 잘 아시죠? 접착제를 너무 많이 쓰면 접착제가 나무의 결면으로 빠져나와 균잡아요. ③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량만 발라줍니다. 접착제로 다 붙인 후에는 못을 자동으로 막는 목공 기구인 '타카건'으로 나무판들을 고정합니다. ④ 이렇게 한 다음 연필꽂이의 바닥까지 모두 조립하고 사포질을 해 줍니다. 사포질을 안 한 모서리에 찢리게 되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⑤ 사포질을 할 때에는 나무의 결을 따라 하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사포질을 마친 후에는 연필꽂이에 칠을 하거나 장식을 붙여 완성합니다.

[2014년 3월 B형]

69. <보기>는 국어 수업 게시판의 문답 내용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69)

— < 보 기 >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왜 '젓가락'은 'ㅅ' 받침을 쓰는데, '숟가락'은 'ㄷ' 받침을 쓰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젓가락'과 '숟가락'은 비슷한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어. 먼저, '젓가락'은 '저'와 '가락'이 결합된 말로,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인 것이지. '㉠' 같은 단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 말이야. 그런데 '숟가락'은 '수'와 '가락'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술'과 '가락'이 결합된 합성어야. 한글맞춤법에서는 이처럼 끝소리가 'ㄹ'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을 'ㄷ'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 같은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지.

- | | |
|--------|------|
| ㉠ | ㉡ |
| ① 칫솔 | 삼진날 |
| ② 땃돌 | 미단이 |
| ③ 혼샷길 | 선달 |
| ④ 나뭇잎 | 실부르다 |
| ⑤ 셋노랑다 | 만머느리 |

70. ㉠ ~ ㉤의 문장을 고쳐 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0)

	잘못된 문장	고쳐 쓴 문장
㉠	이는 미리 예상했던 일이다.	이는 예상했던 일이다.
㉡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
㉢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나는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았다.
㉣	이 책은 쉽게 읽혀진다.	이 책은 쉽게 읽힌다.
㉤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있으십니다.

- ① ㉠: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 ②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 ③ ㉢: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④ ㉣: 이중피동이 사용되었다.
- ⑤ ㉤: 높임법의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다.

71. <보기>의 표준 발음 규정을 활용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71)

— < 보 기 >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ㅍ, ㅊ, ㅌ, ㅎ), ㅂ(ㅂ, ㅃ,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로 발음한다.

제19항 받침 'ㄹ,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 ① '항로'의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앞 음절의 받침과 관계가 있을까요?
- ② '금용'의 발음이 [금뉡 / 그뉡]의 두 가지로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광한루'는 [광한루]라고 발음하나요, [광할루]라고 발음하나요?
- ④ '칼날'은 표기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단어에 해당되나요?
- ⑤ '밤물'이 [밤뉡]과 같이 발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5학년도 6월 A형]

7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2)

— < 자 료 > —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말, 억, 영, 완)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73.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3)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 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2015학년도 6월 A형

74.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74)

< 보 기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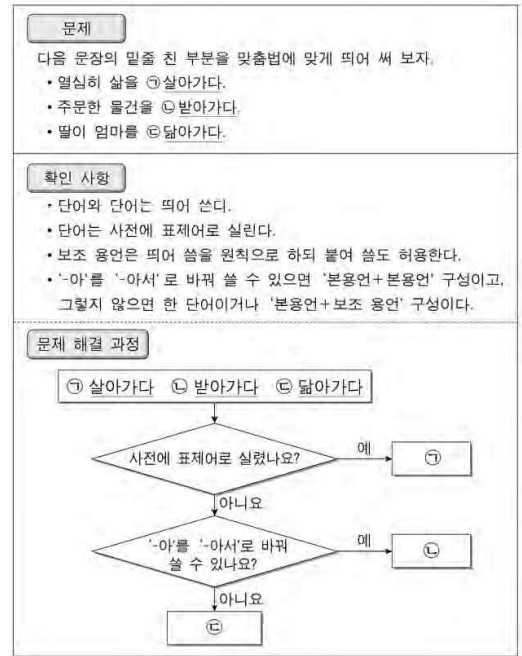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75.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75)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달아 가다 또는 달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달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달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달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달아 가다 또는 달아가다

2015학년도 6월 A형

7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6)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p>[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p> <p>할머니 : 어서 와라.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네, 엄마.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 네,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 아니에요,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 응,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p>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2015학년도 6월 B

7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7)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엷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불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8.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78)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 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 ①
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친다. 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②
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③
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 새끼를 낳았다. 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
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

7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9)

선생님 : 로마자 표기법은 국제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음 자료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표기	표준 발음	올바른 로마자 표기	
가락	[가락]	garak ㉠
앞집	[압집]	apjip ㉡
장릉	[장:농]	jangnong ㉢

학생 : (가)

- ① ㉠에서 ‘가’의 ‘ㄱ’은 ‘g’로, ‘락’의 ‘ㄱ’은 ‘k’로 표기한 것을 보니, ‘가락’의 두 ‘ㄱ’은 같은 자음이지만 다른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표기한 것을 보니, ‘앞집’의 ‘ㅍ’과 ‘ㅂ’은 다른 자음이지만 동일한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③ ㉢에서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인 ‘:’가 로마자 표기에 없는 것을 보니, 장단의 구별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 ④ ㉠에서 ‘락’의 ‘ㄹ’은 ‘l’로, ㉢에서 ‘릉’의 ‘ㄹ’은 ‘n’으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장릉’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 ⑤ ㉡에서 ‘집’의 ‘ㅈ’과 ㉢에서 ‘장’의 ‘ㅈ’을 같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앞집’의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2014년 7월 모의고사

80.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0)

고르다¹ 𐄀 [골라, 고르니]

- ㉠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ㄱ 땅을 고르다.
- ㉡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ㄱ 붓을 고르다.

고르다² 𐄁 [골라, 고르니]

-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ㄱ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ㄱ 숨소리가 고르다.

- ① '고르다¹ ㉠'의 용례 '땅을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유의어로는 '메우다'가 가능하겠군.
- ② '고르다² ㉢'의 용례로 '방바닥이 고르지 않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고르다² ㉣'의 용례 '숨소리가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반의어로는 '거칠다'가 가능하겠군.
- ④ '고르다¹', '고르다²'의 활용 정보에 '골라', '고르니'로 나타난 것을 보니 불규칙 용언이겠군.
- ⑤ '고르다¹', '고르다²'의 품사 표시를 보니, '악기의 줄을 고르다'의 '고르다'는 동사, '치아가 고르다'의 '고르다'는 형용사이겠군.

81. 다음 ㄱ~ㄴ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1)

ㄱ. 꽃[꼰], 앞[압]

ㄴ. 맨입[맨닙], 담요[담:뇨]

ㄷ. 안다[안:따], 탁구[탁꾸]

ㄹ. 낳다[나:타], 오+아서 →와서[와서]

- ①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홀이불 → [혼니불]'을 들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③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얕다 → [업따]'를 들 수 있다.
- ④ ㄹ의 [나 : 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 ⑤ ㄹ의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아 → 집에 가[가]'를 들 수 있다.

8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2)

<보 기>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진다. 명사절은 '-(으)ㄹ', '-기', 관형절은 '-(으)ㄴ', '-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용례	설명
○ 코끼리는 <u>코가 길다</u> .	→ '코끼리는'이라는 주어 서술하는 서술절이다. ①
○ 친구가 <u>소리도 없이</u> 내 뒤로 다가왔다.	→ '다가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②
○ 지금은 <u>학교에 가기에</u> 늦은 시간이다.	→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 ③
○ 오늘 <u>급식을 일찍</u> 먹기는 힘들겠다.	→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④
○ 현재는 <u>자기가 옳다고</u> 주장했다.	→ '현재'의 말을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 ⑤

83.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3)

<보 기>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84. <보기>의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4)

— <보 기> —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 맞지?
철수: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 말했어.
영희: 그럼 너희 형은?
철수: 아마 ㉢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 갔다더라고.
영희: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 대단하구나.

- ① ㉠: 확인 ② ㉡: 의지 ③ ㉢: 추정
- ④ ㉣: 단정 ⑤ ㉤: 감탄

2014년 7월 B형

85. 다음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은? 85)

의문	‘자리를 바꿔(○) 앉았다.’와 ‘잔금을 치뤄(×) 두었다.’에서 ‘바꿔’와 달리 ‘치뤄’의 표기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탐구	(1) 각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활용 형태를 분석해 본다. ◦ 바꾸-(다) + -어 → 바꾸어 → 바꿔 ◦ 치르-(다) + -어 → 치러 (2) ‘치러’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5px auto; text-align: center;">㉠</div>
↓	
결과	‘치르다’를 ‘바꾸다’와 같이 어간이 ‘ㄷ’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치르-’는 어간이 ‘-’로 끝나는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가 탈락한다.

- ① 할머니께서 아침에 동생을 깨워 주셨다.
- ②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가 놓았다.
- ③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 ④ 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몹시 하얗 보였다.
- ⑤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다.

86. <보기>는 ‘끝말잇기’ 놀이에서 제시된 단어들이다. 표준발음법을 참고할 때, 단어의 표기대로만 발음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86)

— <보 기> —

예의 → 의의 → 의무 → 무예 → 예절 → 절의

표준 발음법

- ‘ㅈ, ㅉ, ㅋ, ㆁ, ㄱ, ㆁ, ㄷ, ㅌ, ㄹ’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도 발음한다.
예 지혜[지혜/지혜]
- 다만 4. 단어의 처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 ① 예의, 의의, 의무
- ② 예의, 무예, 절의
- ③ 의무, 무예, 예절
- ④ 의의, 의무, 무예
- ⑤ 무예, 예절, 절의

87.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7)

- ①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
→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 ② 너는 반드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너는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③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 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88.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8)

<보 기>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89. <보기>의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9)

<보 기>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 맞지?
 철수: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 말했어.
 영희: 그럼 너희 형은?
 철수: 아마 ㉢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 갔다더라고.
 영희: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 대단하구나.

- ① ㉠: 확인 ② ㉡: 의지 ③ ㉢: 추정
- ④ ㉣: 단정 ⑤ ㉤: 감탄

2015학년도 9월 A형

90.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90)

< 보 기 >

학 생: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위치			
조음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임]는’, ‘뜯[띵]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_____ ㉠ _____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91.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91)

< 보 기 >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② 돌아서다 ③ 뒤쫓다
- ④ 빛나다 ⑤ 오르내리다

9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92)

< 보 기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2015학년도 9월 공통

9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3)

크다 ㉠ ㉡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는다.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2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 ↔ 작다

작다 ㉧ ㉨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

- ① '크다 ㉠'과 '크다 ㉡'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2015학년도 9월 A형

94.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4)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2015학년도 9월 B형

9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5)

< 보 기 >

선생님 : 오늘은 겹받침 'ㄹ'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ㄹ'과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ㄹ]으로 발음한다.
 ㉡ 겹받침 'ㄹ'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ㄹ'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어간의 겹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생님 : 자, 그러면 겹받침 'ㄹ'을 갖는 말의 표준 발음이 ㉠~㉢ 중 어느 발음 원칙과 관련되는지 말해 봅시다. 모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 생 : _____ [가] _____

- ① '삶과 자연'에서 '삶과'의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② ‘국수를 삶고’에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 ㉡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의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⑤ ‘나의 삶만’에서 ‘삶만’의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96.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96)

< 보 기 >

[제19항]
 ◦ 어간에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굳이, 같이 ㉠

[제25항]
 ◦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꾸준히, 깨끗이 ㉢
 ◦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더욱이, 생긱이 ㉡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긱이 웃다’의 ‘방긱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9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7)

< 보 기 >

영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 응.
 경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니?
 영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물어서 알아봐.
 경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자기의 애송시라고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2014년 10월

98. <보기>에서 설명한 음운 현상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98)

< 보 기 >

동화란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닮아 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다.

- ① ‘붙이다’는 왜 [부티다]가 아니라 [부치다]로 소리 날까?
- ② ‘집안일’은 왜 [지바닐]이 아니라 [지반닐]로 소리 날까?
- ③ ‘권력’은 왜 [퀸력]이 아니라 [켈력]으로 소리 날까?
- ④ ‘먹는다’는 왜 [멍는다]로 소리 날까?
- ⑤ ‘굳이’는 왜 [구지]로 소리 날까?

99.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9)

< 보 기 >

맞다¹ [만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1」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 과연 그 답이 맞는지는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2」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
 【...에/에게】 ¶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
 맞다² [만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1」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을】 ¶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다.
 「2」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는 어떤 때를 대하다.
 【...을】 ¶ 그 신문은 창간 일곱 돌을 맞았다.

- ① 맞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군.
- ② 맞다²의 「1」의 용례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맞다¹과 맞다²는 동음이의어라 할 수 있군.
- ④ 맞다¹의 「2」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군.
- ⑤ 맞다¹과 맞다²는 활용을 할 때에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100. <보기>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ㄱ~ㅍ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0)

< 보 기 >

ㄱ. 과거 시제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로,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실현된다.
 ㄴ. '-았/었-'은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ㄷ.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 사용하기도 한다.
 ㄹ.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ㅁ.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① ㄱ: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
- ② ㄴ: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
- ③ ㄷ: 지난여름에는 정말 덥더라.
- ④ ㄹ: 방학 동안 읽은 책이 제법 여러 권이다.
- ⑤ ㅁ: 여름에 푸르던 산이 붉게 물들었다.

101.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1)

< 보 기 >

어머니: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손에 든 짐을 보여 주며) 할머니 ㉠택에 가져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진우: ㉡잠시만요.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팔로 어머니의 팔짱을 끼면서) 사모님, 같이 ㉢가실까요?
 어머니: (웃으며) 애도 참. 어서 가자.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진우: 할머니 택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 ① ㉠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 ② ㉡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 상대방을 높임 표현이다.
- ③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 ④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 ⑤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임 표현이다.

102.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102)

< 보 기 >

부정문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과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있다.
 '동생이 잔다.'라는 긍정문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자.

주체의 의지가 있습니까? ⇨ ㉠
 아니요

↓예

긴 부정문입니까? ⇨ ㉡
 아니요

↓예

㉢

	㉠	㉡	㉢
①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②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③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동생이 못 잔다.
④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못한다.

2014년 10월 B

103. <보기>를 바탕으로 접반침의 표준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3)

< 보기 >

[표준 발음법 - 반침의 발음]
제10항 접반침 ‘ㄱ’, ‘ㄴ’, ‘ㄹ’,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제14항 접반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제10항을 보니, ‘뿔’을 [뿌]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제10항을 보니, ‘앉는’을 [안는]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제14항을 보니, ‘활은’을 [할튼]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제14항을 보니, ‘없어서’를 [업써서]로 발음해야겠군.
- ⑤ 제14항을 보니, ‘여덟이다’를 [여더리다]로 발음해야겠군.

104. <보기 1>은 접미사 ‘-시키다’와 관련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본 결과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시키다’가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104)

< 보기 1 >

국어사전의 정보 1
-시키다 ㉠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국어사전의 정보 2
사동 ㉡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

< 보기 2 >

ㄱ. 내 힘으로는 균중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ㄴ. 여러분들께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ㄷ. 우리 군대는 적군을 항복시켜 사실상 전쟁을 끝냈다.
 ㄹ. 경수는 몸이 아픈 수희를 병원에 급히 입원시켰다.
 ㅁ. 모든 기계를 가동시켜도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2015년 3월

105. <보기>와 같은 활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105)

< 보기 >

[활동 과제]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다음 사례가 ㉠ ~ ㉣ 중, 어떤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자.
 옷하고[오타고] 홀이불[혼니불]

- | | |
|----------|----------|
| 옷하고[오타고] | 홀이불[혼니불]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106.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106)

< 보기 >

선생님: 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용언	어간	어근
숫다 (단일어)	숫-	숫-
치숫다 (파생어)	치숫-	숫-
쌈숫다 (합성어)	쌈숫-	쌈, 숫-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

용언	어간	어근
줄이다	줄이-	㉠
힘들다	힘들-	㉡
오가다	오가-	㉢

- ㉠ ㉡ ㉢
- ① 줄이- 힘들- 오가-
 - ② 줄이- 힘들- 오-, 가-
 - ③ 줄- 힘들- 오가-
 - ④ 줄- 힘, 들- 오-, 가-
 - ⑤ 줄- 힘, 들- 오가-

107. <보기>의 답화 상황으로 볼 때,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7)

< 보 기 >

A :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야?
 B : 아니, 내가 영희에게 민수 말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분명히 말하고 가져갔다고 그러더라.
 A :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됐나 보다. ㉢아무나 좋으니 일단
 나셔서 민수와 영희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 교실에 있었던 애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B : 나도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 ① ㉠은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② ㉡은 B가 앞서 언급한 ‘영희’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③ ㉢은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④ ㉣은 화자가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⑤ ㉤은 A가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108. 다음은 ‘달다’에 관한 사전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8)

< 보 기 >

달다¹ ㉠ 【…에 …을】 [달아, 다니, 다오]
 ㉡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 배에 돛을 달다.
 ㉣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정하여 붙이다.
 ㉤ 작품에 제목을 달다.

달다² ㉥ [달아, 다니, 다오]
 ㉦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 아이스크림이 달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뺏는다.
 ㉩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 나쁜 식곤에 잠이 달았다.

- ① ‘달다¹’과 ‘달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군.
- ② ‘달다¹’과 ‘달다²’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다니’로 활용되는군.
- ③ ‘달다¹’ ㉡의 용례로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달다²’ ㉡의 속담은 ‘달다’와 ‘쓰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⑤ ‘달다¹’ ㉢은 ‘달다²’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은군.

109. <보기>를 참고하여 ㉠ ~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9)

< 보 기 >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능동문	피동문
㉠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	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
㉢	낙엽이 바람에 난다.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	해당 사례 없음.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

- ① ㉠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과 ㉢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③ ㉢과 ㉣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④ ㉣은 자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⑤ ㉣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015년 3월 B형

110. <보기>는 결합침 ‘ㄷ’의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0)

< 보 기 >

㉠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용언의 어간 발음 ‘ㄷ’은 ‘ㄱ’ 앞에서 [ㄱ]로 발음한다.
 ㉢ 받침 ‘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과 ‘ㅎ’을 합쳐서 [ㄱ]으로 발음한다.
 ㉣ ‘ㄷ’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ㄷ’은 ‘ㄴ,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 ① ㉠: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박따].
- ② ㉡: 밝게[발개] 웃으며 인사하다.
- ③ ㉢: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발켄따].
- ④ ㉣: 전등의 밝기[발끼]를 낮추다.
- ⑤ ㉤: 동쪽에서 날이 밝는다[방는다].

111.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과 ㉠, ㉡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111)

< 보 기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합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추가되었다.

㉠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음. 예) 만이, 굳이, 묻히다	㉡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ㄴ'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음. 예) 희망, 하늬바람	㉢
㉢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 예) 떡이, 손이, 팔이	㉣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함. 예) 목거리(목병), 노름(도박)	㉤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음. 예) 꽃잎, 헛웃음, 굶주리다	㉥

112.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2)

< 보 기 >

문장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표적 유형으로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

- ㉠ ㉠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 ㉡ ㉡ :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 ㉢ :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 ㉣ ㉣ :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 ㉤ ㉤ :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세문법]

113.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3)

<보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자음 ‘ㅅ’과 ‘ㅍ’이 존재하였다.
 ㉡ 초성에 오는 ‘ㅁ’은 ‘ㅂ’과 ‘ㄷ’이, ‘ㅃ’은 ‘ㅅ’과 ‘ㅈ’이 모두 발음되었다.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말쌔·미 中·동·國·궐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 흘·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흥·배 이·셔·도, ㅁ·츄·내 제 ·**ㅃ**·들 시·러 퍼·디 :몬·흥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엇·비** 너·겨·새·로 ·스·믈·여· 들 字·종·를 鳴·그·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ㅃ**·**메** 便·便·安·한·궐·하·고·져 흥 ㅃ·락·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ㅃ·들’의 ‘ㅁ’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엇·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ㅃ·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114.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114)

<보 기>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① 마·늘 > 마·늘 ㅎ > ㅎ
- ② 사·슴 > 사·슴 ㅏ·장 > 가·장
- ③ ㅎ·나 > 하·나 오·늘 > 오·늘
- ④ 사·름 > 사·람 ㄷ·리 > 다·리
- ⑤ 아·들 > 아·들 다·섯 > 다·섯

115. <보기 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115)

(가) ㅇ을 입시울쏘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빅야븐 소리 ㄷ의느니라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나) 첫소리를 어울워 꿩디면 굴바 쓰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나랏 말쌔미 中·동·國·궐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흘·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흥·배 이·셔·도 ㉠ ㅁ·츄·내 제 ㅃ·들 시·러 퍼·디 몬·흥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엇·비** 너·겨·새·로 ·스·믈·여· 들 字·종·를 鳴·그·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ㅃ**·**메** 便·便·安·한·궐·하·고·져 흥 ㉡ ㅃ·락·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116. 다음은 ‘훈민정음’에 대한 발표를 위해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6)

[초성자]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어금닛소리	ㄱ	ㅋ	ㆁ
혓소리	ㄴ	ㄷ, ㅌ	ㄹ
입술소리	ㅁ	ㅂ, ㅍ	
잇소리	ㅅ	ㅈ, ㅊ	ㅊ
목구멍소리	ㅇ	ㆁ, ㆅ	

[중성자]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 ㅡ, ㅣ	ㅏ, ㅑ, ㅓ, ㅕ	ㅓ, ㅑ, ㅓ, ㅕ

[종성자]
 종성에는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

- ①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기본자와 가획자는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 ②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③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④ 모음의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⑤ 받침에 쓰는 자음을 추가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117.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음운 ‘빙’,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7)

— < 보 기 > —

ㄱ. ㅁ술 > ㅁ을 > 마을
 ㅁ술 > ㅁ을 > 가을

ㄴ. (날씨가) ㄷ(다) + -어; 더벼

ㄷ. (색깔이) ㄱ(다) + -어; 고바 > 고와
 (고기)를 ㄱ(다) + -어; 구벼 > 구워

- ① ㄱ으로 보아, 중세 국어 ‘ㅁ술’과 ‘ㅁ을’의 ‘ㅁ’은 음운 변화 양상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② ㄱ으로 보아, ‘·’는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③ ㄴ으로 보아, ‘답다’의 ‘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빙’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ㄷ으로 보아, ‘빙’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지는군.
- ⑤ ㄱ과 ㄷ으로 보아, ‘△’과 ‘빙’은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118.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8)

— < 보 기 > —

海東 六龍이 ㄴㄹ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제1장>

㉡불휘 기픈 ㉢남근* ㉣브르메 아니 뭇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뜨른 ㅁㄷ래 아니 그췌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세종 29년-

* 불휘: ‘불휘+0(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를 나타냄’의 형태로 분석함.
 * 남근: ‘남+은’의 형태로 분석함.

[풀이]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나[飛]서서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과 同符(동부)하시니. <제1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제2장>

- ① ㉠의 조사 ‘이’는 ‘古聖(고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군.
- ② ㉡에는 현대 국어의 ‘가’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군.

- ③ ㉢의 형태소 분석을 볼 때,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체언이 있군.
- ④ ㉣의 조사 ‘은’과 ㉤의 조사 ‘은’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격을 나타내는군.
- ⑤ ㉥과 ㉦의 조사 ‘애’는 모두 앞의 체언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군.

119.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19)

— < 보 기 > —

乃 氷終중기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ㅁ을 입술 소리 아래 ㉡니셔쓰면 입시울가벼야볼 소리 ㄷ외느니라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쓰라 氷終중기 소리도 흥가지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현대어 풀이]
 나중 소리(중성)는 다시 첫소리(초성)를 쓴다. ㅁ을 입술 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첫소리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나중 소리도 마찬가지로.

- ① ㉠: 첫음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② ㉡: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 ⑤ ㉤: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나타난다.

[2014년 3월 B형]

120. <보기>에서 ㉠~㉤에 들어갈 목적격 조사로 옳은 것은?120)

— < 보 기 > —

15세기 국어의 모음 중 ‘·’, ‘ㅁ’, ‘ㅁ’은 양성모음, ‘-’, ‘ㄱ’, ‘ㄷ’은 음성모음, ‘ㅣ’는 중성모음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모음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을, 를, 를’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함께 체언과의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중세국어	현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사람+㉠	사람+을	누+㉡	누구+를
천하+㉢	천하+를	뽕+㉣	뽕+을

- | | | | | |
|---|---|---|---|---|
| | ㉠ | ㉡ | ㉢ | ㉣ |
| ① | 을 | 를 | 를 | 을 |
| ② | 을 | 를 | 을 | 를 |
| ③ | 을 | 을 | 를 | 를 |
| ④ | 을 | 를 | 를 | 을 |
| ⑤ | 를 | 을 | 을 | 를 |

2015학년도 6월 B형

12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121)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이, 의, 스, ㅣ'가 있었다. 이 중 '이, 의, 스'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이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 /음성 모음	+	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 /음성 모음	+	스

(예) 늑+이 : 늑**이** 뜯 거스디 아니허거든 (늑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 거북**의** 터리 곧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스 : 大王**스** 말썸미샤 울켜신마른 (대왕의 말썸이야 울으시지만)
 나무+스 : 나무**스**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ㅣ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어)
- 다섯 **줄위+㉡** 글워를 날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
- ① 이 스
- ② 스 의
- ③ 의 스
- ④ 스 의
- ⑤ 의 의

2014년 7월 B형

122.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2)

<보 기>

의문문에는 청자에게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중세 국어의 경우, 판정 의문문에는 '-가', '-너' 등의 어미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 '-뇨' 등의 어미가 쓰인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나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쓰인다.

- ㄱ. 이 썩리 너희 **중가**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나?)
- ㄴ. 이제 **엇더호고** (이제 어떠하나?)
- ㄷ. 네 **모르던다** (너는 모르느냐?)
- ㄹ. 네 **엇테 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

- ① 'ㄱ'의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중가'를 '중고'로 바꿔야겠군.
- ② 'ㄴ'의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호고'를 '호가'로 바꿔야겠군.
- ③ 'ㄴ'과 'ㄷ'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군.
- ④ 'ㄷ'의 '너' 대신 3인칭인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고'로 바꿔야겠군.
- ⑤ 'ㄷ'과 'ㄹ'을 보니,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의문형 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군.

2015학년도 9월 B형

123.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3)

< 보 기 >

중세 국어 : 뒤혜는 모딘 도죽 알피는 어드븐 길헤 업던 번개를 하늘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 뒤혜는 모딘 중싱 알피는 기픈 모새 열븐 어르물 하늘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얹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① '모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③ '하늘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군.
-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

- ① ㉠ : 관형격 조사로 ‘시’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④ ㉣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2015년 3월 B형

127. ㉠~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7)

< 보 기 >

<p>[중세 국어] ㉠부테 目連(목련)이드려 ㉡니르샤되 [현대 국어]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 [중세 국어] 耶輸(야수) ㉢부텃 使者(사자) 았다 ㉣드르 <u>시고</u> [현대 국어]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중세 국어] 내 딸 勝鬘(승만)이 聰明(총명)하니 부터웃 ㉤보스 불면 [현대 국어]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만 보면 - 『석보상절』 -</p>
--

- ①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③ ㉢ : 관형격 조사로 ‘시’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1) ㉓
- 2) ㉓
- 3) ㉔
- 4) ㉕
- 5) ㉓
- 6) ㉒
- 7) ㉑
- 8) ㉒
- 9) ㉓
- 10) ㉔
- 11) ㉕
- 12) ㉕
- 13) ㉒
- 14) ㉕
- 15) ㉒
- 16) ㉔
- 17) ㉓
- 18) ㉒
- 19) ㉕
- 20) ㉕
- 21) ㉕
- 22) ㉓
- 23) ㉓
- 24) ㉔
- 25) ㉓
- 26) ㉒
- 27) ㉑
- 28) ㉓
- 29) ㉔
- 30) ㉑
- 31) ㉓
- 32) ㉔
- 33) ㉒
- 34) ㉒
- 35) ㉓
- 36) ㉒
- 37) ㉕
- 38) ㉕
- 39) ㉔
- 40) ㉔
- 41) ㉓
- 42) ㉒
- 43) ㉓
- 44) ㉒
- 45) ㉓
- 46) ㉔
- 47) ㉔
- 48) ㉑
- 49) ㉒
- 50) ㉓
- 51) ㉑
- 52) ㉑
- 53) ㉓
- 54) ㉒
- 55) ㉒
- 56) ㉒
- 57) ㉓
- 58) ㉑
- 59) ㉒
- 60) ㉓
- 61) ㉕
- 62) ㉑
- 63) ㉒
- 64) ㉕
- 65) ㉔
- 66) ㉑
- 67) ㉑
- 68) ㉔
- 69) ㉓
- 70) ㉒
- 71) ㉒
- 72) ㉑
- 73) ㉓
- 74) ㉕
- 75) ㉑
- 76) ㉒
- 77) ㉒
- 78) ㉓
- 79) ㉕
- 80) ㉑
- 81) ㉕
- 82) ㉔
- 83) ㉒
- 84) ㉔
- 85) ㉒
- 86) ㉓
- 87) ㉔
- 88) ㉒
- 89) ㉔
- 90) ㉑
- 91) ㉒
- 92) ㉔
- 93) ㉓
- 94) ㉑
- 95) ㉕
- 96) ㉕
- 97) ㉒
- 98) ㉒

- 99) ㉒
- 100) ㉑
- 101) ㉕
- 102) ㉒
- 103) ㉕
- 104) ㉒
- 105) ㉒
- 106) ㉔
- 107) ㉑
- 108) ㉓
- 109) ㉓
- 110) ㉔
- 111) ㉒
- 112) ㉕
- 113) ㉓
- 114) ㉒
- 115) ㉕
- 116) ㉓
- 117) ㉒
- 118) ㉕
- 119) ㉒
- 120) ㉑
- 121) ㉑
- 122) ㉔
- 123) ㉒
- 124) ㉑
- 125) ㉓
- 126) ㉓
- 127) ㉒